

## 마스크 대신 속옷 쓰고 장본 여성

플로리다주에서 마스크 대신 속옷을 쓰고 나와 장을 본 여성의 모습이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미국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지난 7일 플로리다주 코코넛 크릭에서 살고있는 재레드 릭터와 제니퍼 부부는 장을 보기 위해 마트에 도착했다.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아내인 제니퍼가 막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맞은편에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고 그만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 그 여성은 속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자연스럽게 트렁크에 장본 물건을 싣고는 쇼핑 카트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있었다. 재레드와 제니퍼는 처음에는 의아해 하다가 이내 그 여성이 마스크가 없어서 속옷이라도 쓰고 나온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재레드는 “웃으면 안 되겠지만 계산대 직원이 계산을 도와주려고 얼굴을 들었는데 갑자기 속옷을 쓴 여성이 서있었다면 얼마나 당황해 했을까란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의 느낌을 말했다. 주차장에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도 신기한 그녀의 모습에 처음에는 의아한 느낌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이해한다는 듯이 지나쳐 갔다.

재레드가 SNS에 올린 사진과 영상은 언론에도 소개되



있고, 코로나19가 몰고 온 ‘웃픈’ 미국 현실의 한 단면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미국 내 마스크 대란은 거의 ‘참사’ 수준이다. 일반인은 물론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조차도 제대로 된 마스크와 방호복을 구하기 힘들어 마스크 대신 스카프를, 방호복 대신 쓰레기 봉투를 착용하고 환자를 돌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달 25일에는 뉴욕주 마운트 시나이 병원에서 일하던 48세 간호사가 코로나19로 사망했으며, 이 병원은 장비가 부족해 의료진들이 대형 쓰레기 봉투를 잘라서 입고 일했다.

## 사재기 한 화장지 환불 요구한 파렴치한

사재기한 화장지와 손세정제를 온라인에서 팔려다 판로가 막히자 마트에 환불을 요구한 사람에게 마트 주인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한 말이 화제다.

14일 호주 채널7에 따르면 남호주 애들레이드에 위치한 드레이크 마트에 한 남성이 찾아와 환불을 요구했다. 마트 주인인 존 폴 드레이크는 “한 남성이 자신이 우리 마트에서 구매한 화장지와 손세정제를 환불하고 싶다고 찾아왔다.”며 “이 남성이 환불을 요구한 화장지는 32개가 들어 있는 화장지 팩 150개에 1리터짜리 세정제 150개였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은 코로나19로 생필품 사재기 광풍이 불 무렵 화장지와 세정제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려고 구입했으나 이베이가 화장지와 세정제 고가 판매를 금지 시키자 판로가 막혀 버려 환불 하려고 한다고 고백했다. 더군다나 이 남성은 자신이 20명의 사람들을 조직해 마트에서 사재기를 한 것도 실패했다.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난 마트 주인은 이 남성에게 ‘손가락 욕’을 한 후 쫓아 버렸다. 드레이크는 “이 같은 사람들



때문에 주민들이 화장지와 세정제를 구하지 못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 전체가 생필품 품귀 대란이 일어난 것”이라며 “8개월치 화장지가 4주 만에 팔렸고, 1년치 밀가루가 단 9일 만에 팔릴 정도로 사재기 광풍의 시간이었지만 이제 많이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라고 말했다.

호주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마스크, 세정제 사재기가 일어났으며 3월을 넘기면서 화장지, 파스타, 쌀, 통조림 같은 생필품으로 이어졌고, 4월 초반을 넘기면서 대부분의 생필품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으나 아직도 파스타 소스나 쌀은 거의 품귀 상태다.

## 미 남성들 ‘정자 냉동’ 급증

정자 냉동을 결정하는 남성들이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시 불임이 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미국 데일리비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집에서 정자를 자가 채취할 수 있는 키트를 판매하는 미국의 한 업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직후부터 지난 몇 주간 키트 판매량이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이 남성들은 대체로 키트를 이용해 정자를 자가 채취한 뒤 정자를 극저온에 보관하는 전문 클리닉으로 보내는 방법을 택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일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감염과 생식 능력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후부터 극심해 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중국 우한대학 중난병원과 후베이 산전 진단 및 출생 건강 연구소 공동 연구진이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54세 남성 환자 81명의 혈액 샘플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환자들의 평균 황체형성호르몬 비율은 0.74로, 코로나19와 무관한 남성들의 평균 호르몬 비율의 절반에 불과했다.

황체형성호르몬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남성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조절에 모두 관여하는데, 이 호르몬의 작용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성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 생식샘저하증이 나타날 수 있다.

당시 연구진은 “다만 코로나19 환자들 중 생식 능력에 이상이 생긴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 없으며, 치료 과정에서 투여된 약물이나 면역시스템이 호르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더욱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출산 전문가인 제임스 그리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기나 독감 등과 마찬가지로 고열 증상을 동반하는데, 고열은 정자 생산량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그러나 남성들은 대체로 새로운 정자를 매일 생산해낼 수 있는 생식세포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앓는 동안에도 이러한 정자 생산 능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가나 세무 & 보험의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가나 세무보험**  
GANA TAX & INSURANCE

**실업수당 신청 • 긴급재난용자 신청 • PPP(급료보호 프로그램) 신청**

**가나 세무 & 보험은 고객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세금과 보험을 함께 도와드리는 가나 세무 & 보험  
보험고객은 세금수수료 50% 할인해 드립니다.  
65세 이상 고객의 세금보고는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사업소득 제외)

세금보고 / 법인설립 / Sales Tax  
세무감사대행 / 회계업무 / Payroll Service  
오바마 케어 보험 / 메디케어 보험 / 기타 보험

\*세금보고마감 3개월 연장 : 7월 15일까지\*

**김선광 (Kayson Kim)**  
40년 실무경험의 공인세무사  
beachgana@gmail.com

**O : 714.827.0707**  
**C : 714.588.3355**

**3008A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